

교회소식

2020. 2. 2. 132호

-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교인등록카드를 작성해주세요.
 입국: 장인걸(대원,대현,민정,은정) 출국: 이제희
- 어린이교회 교사: 김현실, 민예원, 오경희
- 2019년 헌금영수증 수령해 가세요.
- 예배 후 식사친구가 지하에서 있습니다. (윤선희 사모님 가정에서 섬김)
 주방섬김이 (김혜성, 김현실)

함께 떡을 떼며 서로 발을 씻겨주는
다트머스 한인교회

지난 주 통계		
주일 헌금	CD \$75	1, 2, 3, 14, 21, 24, 36, 38
감사 헌금	CD \$65	1, 2, 45
십일조	CD \$210	1, 2, 12
장년 출석	16명	어린이 출석 15명

		2020년 1월					
구분	항목	2020-01-05	2020-01-12	2020-01-19	2020-01-26	합계	
수입	헌금						
	주일헌금	95.00	65.00	0.00	75.00	235.00	
	감사헌금	60.00	80.00	0.00	65.00	205.00	
	십일조	80.00	100.00	0.00	210.00	390.00	
	특별헌금	0.00	10.00	0.00	0.00	10.00	
	소계		235.00	255.00	0.00	350.00	840.00
기부 드 기타		0.00	0.00	0.00	0.00	0.00	
이월		1,517.03				1,517.03	
소계		1,752.03	255.00	0.00	350.00	2,357.03	
지출	친교음식	11.97	49.38	0.00	60.92	122.27	
	사무용품	0.00	20.89	0.00	7.23	28.12	
	경기	구경/선교	100.00	0.00	0.00	100.00	200.00
		렌트비	200.00	0.00	0.00	200.00	400.00
		목회자보	285.00	0.00	0.00	285.00	570.00
		사례비	0.00	0.00	0.00	0.00	0.00
		예비비	50.00	0.00	0.00	50.00	100.00
	소계		635.00	0.00	0.00	635.00	1,270.00
	기타		0.00	0.00	0.00	92.87	92.87
	소계		646.97	70.27	0.00	796.02	1,513.26

BAL 843.77

*01/26 지출(기타) : 1월 봉일자 봉일 선물



RBC Royal Bank®

Close

Chequing

2 Feb 2020

CAD Chequing 01943-1017292

Current Balance: \$836.24
 Available Balance: \$836.24
 Authorized Overdraft: \$0.00

여호와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와이라

— 출애굽기 15:26



Copyright 2015. 구산성당교회. All rights reserved.

교회주소: 50 Ritcey Crescent Cole Harbour, NS B2W 6J8

홈페이지: www.dartmouth-k-church.com

예배 안내: 주일예배 2:00PM 본당

어린이교회 2:00PM 지하 청소년교회 1:30PM 지하

담임목사: 김승용 902-746-3566, mahanaim0904@gmail.com

주일 예배 순서

여는 기도		김승용목사
찬양		다함께
성경봉독	창 28:10-19	김승용목사
어린이설교	하나님의 집, 벤엘	김승용목사
대표기도		김승용목사
성경봉독	출 15:22-27	다함께
설교	치료하는 여호와	김승용목사
교회소식		김승용목사
결단의 찬양		다함께
축도		김승용목사

(어린이교회) 창세기 3:14-21

- 10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 11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 12 꿈에 본즉 사닥다리 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 13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 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 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 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 18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 19 그 곳 이름을 1)벤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출애굽기 15:22-27

-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1)마라라 하였더라
-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새
-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는 물 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목회자 칼럼

출애굽기는 두 진영의 거대한 싸움을 보여줍니다. 애굽과 바로로 대변되는 그룹과 모세와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그룹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과 바로가 의지하는 것들을 완전하게 무너뜨리 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10가지의 재앙이 거듭될수록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의 끝은 홍해 앞에 가로막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칼을 들고 쫓아 나오는 것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 완악함의 끝은 홍해에서 수장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진영의 싸움의 원인이었던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그들은 바로의 박해 아래 고생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로 인해 그들의 노역이 더 가중됨을 보고 오히려 원망합니다.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뤄짐을 보았고 애굽에서 나올 때는 너무 좋았지만 막상 홍해를 만나자 그들은 모세를 향해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하는가라고 원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애굽과 직접 싸우시며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십니다. 이쯤되면 그들에게서 불평과 원망이란 사라져야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목이 말라 헤매던 중에 쓴물이 나는 마라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불평은 다시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후의 광야의 길에서도 그들의 불평과 원망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은 감사와 불평을 이어서 쏟아냅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그들은 마치 전혀 딴 사람들 처럼 행동합니다. 마치 한 샘물이 쓴물과 단물을 같이 쏟아내는 것처럼 이것은 이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질병이라는 생각을 해 보셨나요? 우리는 흔히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과연 그런가요? 그런데 돌아보면 같은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모두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지는 않습니다. 또 같은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는 감사를 표하는 반면 어떤 이는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평과 원망은 상황과 형편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고 하기 보단 그 상황과 형편을 받아들이는 태도일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좋지 못하면 우리는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면서 그들 안에 노예근성이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지내면서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불평과 원망의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마라의 쓴물을 고치기 위해 나무를 던져 넣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고침에는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가 심어진 사람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들은 결코 상황과 형편으로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의지하여 승리하고 감사하며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감당 못할 은혜로 인해 만족하며 감사합니다. 십자가가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유는 십자가의 가치가 비교 불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을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했습니다. 이미 가장 좋은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부어졌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최고의 것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언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루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은 결코 우리를 흔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지금 우리의 상황은 결코 우리가 받게 될 그 상급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붙드는 자는 그러기에 환란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지며 근심 중에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고난 중에서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쓴 물에 십자가를 던집니다. 쓴 우리의 마음이 단 물로 바뀌도록, 우리의 삶의 중심에 십자가를 세웁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으며 살아갑시다.

다트머스 한인교회 담임목사 김승용

보소서 주님

(원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 -- 소서 -- 주님 -- 나의 마음을 -- 선 -- 한 것하 -- 나 -- 엽습니다
 - 그 러내 -- 모든 것 -- 주께 드립니 -- 다 사 랑으로 -- 안으시고 --
 나 새롭 -- 게 하소서 -- 주님마 -- 음내 -- 게 주 -- 소서 -- 내아 -- 버지 --
 주님마 -- 음내 -- 게 주 -- 소서 -- 나를 향하 -- 신 -- 주님의 뜻이 -- 이 루어지 -- 도록 --
 주님마 -- 음내 -- 게 주 -- 소서 -- 내 게사 -- 랑 -- 을가 -- 린치 -- 소서 --
 당신 의마 -- 음 -- 으로 -- 용서 하 -- 게하 -- 소서 -- 주의 성 -- 경내 -- 게채 -- 우사
 주의길 -- 가 -- 게 -- 하 -- 소 -- 서 -- 주 님 당신 마음 주소서 --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Words and Music by 정신호

주 사랑이 -- 나를 숨쉬 -- 게해 -- 세상 그어 -- 면 -- 어려 -- 움속 -- 에도 --
 주 사랑이 -- 나를 이 -- 끄 -- 시네 -- 내가 갈수 -- 없 -- 는그 -- 곳 -- 으로 --
 주 은혜로 -- 나를 돌보 -- 시며 -- 세상 끝날까 -- 지지 -- 켜주 -- 시네 --
 주 의 사랑 -- 나를 불드 -- 시며 -- 세상 끝날까 -- 지인 -- 도하 -- 시네 --
 주님 -- 만이 -- 내아 -- 품아 -- 시며 -- 주님 만이 -- 내 -- 맘어 -- 루만 -- 지네 --
 어느 누구도 -- 나를 향 -- 하신 -- 주님 의 사랑 -- 을 끊을수 -- 없네 --
 주님 -- 만이 -- 내 능력 -- 이 -- 시며 -- 주님 만이 -- 의구 -- 원이 -- 시네 --
 어느 누구도 -- 나를 향 -- 하신 -- 주님 의 사랑 -- 을 끊을수 -- 없네 --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상황속-에 -서- 주를찬양할-지 -라-
주의영광구-할 -때- 주의영을부-으 -사-



주는너의큰-상 -굽- ~큰도움이-시라 - -
크신사랑안-에 -서- 주를보게하-소서 - -



내 영혼이-확정되고-확정되었-사오-나 믿음 의눈들-어-----



주를바라봄--니다- 내 영혼이-확정되고-확정되었-사오-나-



믿 음의눈들-어---주를 바라봄-니다 -



주를 찬양할 -때 주의나-라 이미잉 -했네 - - -



주의 영원한--나라-- -주 보게하--소서 -

안개가 날 가리워

주님은 산 같아서

김준영 사 임선호 곡



안개가-날가리워 - 내믿음-흔들리려 - 할-때-
주님은-산같아서 - 여정히-그자리에 - 계-셔-



나 주님께- 나 아가네- 이리라-날위-한그사랑 -
눈 을들면- 보



주는나 -의도움이시며 - 주의계 -획영원하시네 -
(주님께) -서날이고시며 - 주가함 -상함개하시네 -



주의위 -영앞 에 믿음으로순종의 예배드리리
주의사 -랑안 에



- 주님께 - 영원히 -